

# 선거판에 뺏긴 일손...속 타는 농촌

### 방학 앞둔 대학생들, 고된 일 회피·취직 기대감에 선거운동 선호 농번기 인력난 부채질...도심도 카페 등 아르바이트 못구해 올상

“일할 사람이 없어요.”

6일 오전, 양파 수확이 한창인 무안지역 양파농가들은 하나같이 “일손이 부족하다”며 아우성을 쳤다. 넓은 들녘엔 수확해야 할 양파가 널렸지만 일꾼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역 농가들 모두 같은 처지라 ‘뿔맛’이 생겼을지 모르겠다. 농가들의 설명이다.

장성지역 사과농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사과 나무에서 좋은 열매만 남기고 숙여내는 ‘적과 작업’을 할 시기지만 일손이 부족하다. 적과 작업은 사과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안 되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 과수농가들은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모내기 한창인 농촌지역에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농민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흥군 풍양면 김근호(45)씨는 “매년 선거철이 농번기와 겹쳐 일손 찾기가 힘든데 올해는 더욱 사람이 없어 마을 노인들까지 일을 거들어야 할 형편이다”고 하소연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가족이나 일할 사람없는 농촌지역이 선거 시즌에 접어들면서 일손부족 문제로 애를 태우고 있다. 선거운동으로 받는 공식선거 하루 일당은 7만원 수준이다. 농사일을 해 받는 일당과 비슷하고 최저임금보다

는 못하지만, 땀벌 아래서 고된 농사일을 하는 것보다는 선거운동이 수월하고 집중적으로 일하는 시간도 짧아 농촌지역 인력난을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무안의 한 양파농가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농번기 일손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며 “지방선거까지 겹쳐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선거철 일손부족 문제는 비단 농촌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심지역에서도 아르바이트 인력이 필수인 업종들 사이에서는 ‘짧은 일손’ 구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문화기획·이벤트 업계에서는 각종 문화행사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맞물리자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인력관리’에 나서고 있다. 예년같으면 기말고사를 마치고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대학생들이 넘쳐났지만, 지금은 선거운동 아르바이트에 나서려는 대학생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농촌과 도심지역 모두 ‘혹시나’하는 마음에 선거운동 아르바이트를 더 선호한다는 점도 문제다. 선거를 돕는 후보자가 당선되면 ‘본인이나 자식들의 취직문제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깔려있다

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지역 한 문화기획사 관계자는 “요즘엔 일하는 시간이나 근로강도, 휴식시간, 식사 등 모든 여건을 비교해보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혹시나 나중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일부러 선거운동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구직자들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광주지역 정가 한 관계자도 “선거를 도운 뒤 당선자와 함께 해당 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당선자의 도움을 받아 다른 기관에 취업을 하는 과거 사례가 많다보니, 이를 기대하고 선거판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부쩍 늘었다”면서 “하지만 최근 공정한 취업 분위기 속에서 선거 도움을 일자리로 보상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xer@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6일 오후 광주시 동구 산수 5거리에서 동구지역 후보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금품수수 의혹 서대석 즉각 사퇴해야”

### 임우진 무소속 서구청장 후보 성명...서측 “사실무근...법적 대응”

임우진 무소속 서구청장 후보가 “광주시 공무원 승진과 시 산하기관 사업참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대석 더불어민주당 서구청장 후보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임 후보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인권도시정치 1번지 서구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대석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가 ‘공무원 인사 청탁 및 공공사업 로비에 따른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서구청장 후보에서 즉각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중앙당과 광주시당은 서구민의 명예를 훼손한 서 후보를 철저한 검증 없이 공천한 책임을 지고 서구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서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면서 “서대석 후보가 당선된 후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인해 자격이 상실돼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5일 조모(50·사업)씨가 “서 후보에게 공무원 승진 인사 청탁과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 참여 대가로 1800만원을 전달했고, 관련 녹취록이 있다”며 광주지방경찰청에 자수했다. 조씨는 “과거 윤장현 시장 선거 캠프에서 수행팀장을 맡았던 서 후보와 함께 일한 인연으로 청탁을 하게 됐고 서 후보가 ‘과거 받았던

돈을 다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서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서 당선이 유력해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자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씨는 서 후보와 과거에 받은 돈을 되돌려주는 문제를 서로 상의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통화 녹음 2건을 경찰청에 제공했다. 이에 광주지방경찰청은 조씨가 5일 오전 자수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씨를 불러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조씨가 서 후보를 통해 사업 참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실제 광주시환경관리공단 60억원대 하수 슬러지 정화 사업과 관련해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씨가 경찰청에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당시 광주시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후보 측은 5일 반박자료를 통해 “공무원 인사청탁과 사업 참여 금품 제공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과거 이 환경업체에서 고문 자격으로 4개월가량 일했고 800만원을 받은 것”이라면서 “선거가 7일 남은 임박한 시점에 허위사실과 음해로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 광주 온 박영선 “민주당에 힘을”

### 동구 출마자 합동 유세 지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6일 광주를 찾아 “광주의 선택이 한반도를 평화롭게 했다. 또한 한 번 광주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선택해 남북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시 동구 산수5거리 일대에서 열린 임택 민주당 동구청장 후보 등 동구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합동 거리 유세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광주시민의 위대한 결단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시켰다”면서 “문재인 정권

은 광주·전남이 만들었으며 문재인 정권은 호남정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동구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소외된 것은 굉장한 아픔이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믿어주면 동구의 도시재생을 확실하게 해 동구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구례와 광양, 보성, 장흥, 해남, 장성 등지를 돌며 전남지역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박 의원은 “전남의 격전지 분위기가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선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6·13 선거현장

### 김영록 “골목경제 살리는 경제도지사”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지난 5일 전통시장을 잇달아 방문, ‘골목경제 살리는 경제도지사 후보’ 행보를 이어갔다.

김 후보는 이날 영암읍장·완도읍장·영산포 풍물시장·순천웃장을 차례로 방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약인 ‘고향사랑 전남 페이(J-pay)’, ‘전남 새천년 상품권’ 등을 알렸다.

‘전남 페이(J-pay)’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과도한 카드결제 수수료 및 카드단말기(VAN)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가 지급하는 보조금 및 수당, 바우처 등을 적극 활용해 수수료를 없애는 제도다.

### 신우철 “후보 전원 참석...토론회 다시 해야”



신우철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후보는 6일 “최근 지역인사에서 주관한 완도군수 후보자 토론회에 무소속 박삼재 후보가 참석하지 않아 아쉬웠다”며 “박 후보가 참여한 토론회가 다시 열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지난 4일 군수 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순호 목포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하지만 상대 후보가 불참하면서 신 후보 단독 대담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담에서 신 후보는 민선 7기 군정 전반에 대해 정책과 공약 등을 제시했다. 또 군수 자질과 역량에 대한 검증도 이뤄졌다.

### 구충곤 현충일 유세 중단...환경정화 활동



구충곤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는 6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현충일 유세를 전면 중단했다.

유세차량은 물론 선거운동원도 일체 선거홍보활동을 중단하고, 화순읍 주요 도로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구 후보는 이날 문행주 전남도의원 후보, 강순팔·이선·하성동·윤영민 화순군의원 후보 등과 남산공원 충혼탑을 참배하고,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그는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찾아온 것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의 위업과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권오봉 “보훈가족 처우 개선 힘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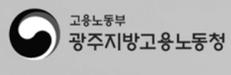


권오봉 무소속 여수시장 후보는 6일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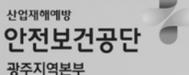
권 후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소외되지 않고 예우 받는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면서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훈수당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등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정책을 여수시 차원에서 다시 꼼꼼하게 챙겨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보훈기관 주차장 추가 확보, 현충탑 통합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안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출판부장 jwpark@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산업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 추락은 사망입니다

2017년 건설현장 추락으로 276명 사망

# 안전은 생명입니다

(사업주)작업발판·안전간판 설치 + (작업자)안전모·안전대 착용

**약속해요! 설치하고! 착용하고! 추락재해 절반으로 줄입니다!**